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 종교적 및 사회적 가치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David Mathewson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종교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강의 3입니다. 데이비드 매튜슨 박사.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신약성서 시대까지 이어졌고, 신약성서 시대까지 이어진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환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쟁적인 종교 이념과 경쟁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여러 선택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1세기에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 다소 인위적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을 구분하자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여 신약성경 기록의 환경과 배경, 종류와 전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1세기에 신약성서가 기록되기까지의 역사, 배경,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련된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학술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더 나은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배경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처음에 당신 자신을 드러냈던 상황에 대해 더 큰 감사와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큰 감사와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참석과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우리는 특히 로마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 지도는 빨간색 선이 대략 1세기 로마 제국의 로마 통치 범위를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 힘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확산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헬레니즘화 과정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헬레니즘화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영향, 그리스 사상, 그리스 문화, 그리스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과정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탐구와 또 다른 투쟁의 기간 이후, 지평선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다음 초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마는 곧 알렉산더의 제국을 훨씬 능가하는 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영향력과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도 로마 제국과 로마 통치의 영향력과 권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가 씨름한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의 통치와 억압의 맥락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이교와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를 들어, 지난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구약의 중요한 언약과 약속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계통의 왕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 창조물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주위를 둘러보면 다윗 가계의 아들이 보좌에 앉은 대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교 통치자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약속이 악을 봄으로써 모순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악을 봄으로써,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되는 외국 통치자를 봄으로써.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환경에 더하여 1세기의 종교적 환경을 조금 살펴보고 싶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환경을 구별하는 것은 다소 인위적입니다..

대신, 종교와 정치는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와 그들이 로마 통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1세기에 살았다면 당신이 따를 수 있는 종교적-슬래시-철학적 선택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등장한 유일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종교적, 철학적 운동과 경쟁하고 그 맥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당시 정치적,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일들과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 중 몇 가지, 몇 가지 기본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매우 넓은 붓놀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메모에 몇 가지 기본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의 사상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플라톤 학자이자 그의 저술을 연구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중요한 것을 요약하자면, 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플라톤적 사고 중 하나는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이원론이었습니다.

즉, 물리적 세계는 기본적으로 진정한 영적 현실의 반영, 그림자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적 현실이었고, 물리적 현실이 거기에 종속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며, 때로는 영적인 현실에 비추어 폄하되고 멸시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론은 그러한 용어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육체로부터의 탈출 또는 물리적 세계로부터의 탈출과 진정한 현실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적 사고 유형, 이 이원론적 사고 유형에서는 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이원론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는 단지 실제 현실의 반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종류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생각이 플라톤 이원론에 기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 중 일부에 표면화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많이 듣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종종 영혼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육체나 인류의 육체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원론은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때때로 그러한 사고방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 유형의 종교 운동은, 아,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 중 한 명인 네로의 흉상입니다. 나는 로마 통치에 관해 논의하는 동안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잔인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로마를 불태운 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을 비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네로의 통치하에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닉의 통치나 박해 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관해 쓰여진 신약성경 문서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스토아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스토아(stoa)는 기본적으로 이 기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스토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큰 열주가 있습니다. 현관과 기둥을 지지하는 열주가 있는데, 그것은 스토아(sto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의 두 번째 종류의 종교적 슬래시 철학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금욕주의로 알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욕주의는 이 기둥이나 기둥 중 하나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 스토아(stoa)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더 이상 이 말을 많이 듣지 않지만, 누군가를 금욕주의자라고 지칭하거나 누군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그러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 수업을 가르쳤을 때, 누구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금욕주의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금욕적이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의 특징을 금욕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용감합니까? 예, 그들은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고 표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금욕주의로 알려진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며 물질 세계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물리적인 물질 세계에는 로고스라고 알려진 일종의 신성한 질서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에 따르면, 동일한 단어인 로고스는 모든 물리적 물질에 스며드는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영혼 또는 세계 영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족의 열쇠, 금욕주의는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것을 강조했고 만족의 열쇠는 단순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순히 상황이 돌아가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금욕주의라고 불리는지, 거기에 서 있는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지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금욕주의자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단지 받아들이고, 사물이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물질이고, 이 신성한 영혼이나 세계 영혼이 주입되었으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만족의 열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세계와 조화롭게 살고, 단지 조화롭게 살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욕주의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종교적 선택, 또는 또 다른 종교적 슬래시 철학적 선택은 냉소주의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트에 나열된 세 번째 종교입니다.

냉소주의는 매우 일반적으로 매우 기본적으로 어쩌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냉소주의는 사람에게 간단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냉소주의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가꾸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상 유지, 상황, 상황을 뒤흔들거나 뒤집었습니다.

냉소주의는 현상 유지, 특히 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를 거부하고, 육체적 안락을 거부하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예수께 냉소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냉소적이라는 말은 냉소적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회를 비판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부와 세상의 안락함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냉소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때로는 좀 더 온화한 냉소주의 표현부터 좀 더 급진적인 냉소주의 표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냉소주의였습니다. 단순한 삶,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세요.

편안함을 거부하고 부를 거부하십시오.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또 다른 종교적 슬래시 철학적 옵션은 마술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이라고 해서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을 반으로 자르거나 의자를 뜨게 하거나 카드 마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술이란 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에 마술은 로마 세계의 여러 상황에서 불법이었지만 상당히 널리 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법과 관련하여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세기의 마법은 때때로 올바른 공식을 사용하여 신의 힘을 조작하거나 요청하고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올바른 공식, 올바른 주문 및 주문 등을 활용하여 악마 존재를 물리치고 악마 존재를 훈련하거나 쫓아내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은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텍스트로 알려진 것에 대한 약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마법의 텍스트나 마법의 파피루스로 알려진 초기 사본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단순한 한 장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구약성서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파피루스는 기본적으로 기록 자료였으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 갈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펼치고 함께 접착하여 필기용 종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성서 사본과 마법의 텍스트를 포함한 다른 초기 사본의 저작물이 이 파피루스 시트에 나와 있으며 분명히 수세기 동안 발견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이며, 분명히 이러한 마법의 텍스트 중 하나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에게 다소 핑키해 보이는 이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할 수 없거나 발음할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올바른 순서로 반복하고 또

다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발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신들의 신, 은인, 그리스 단어, 그리스 이름, 그리스 이름, 낮과 밤을 지시하는 당신, 이 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두 개의 그리스 이름이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올바른 공식을 말함으로써 신을 부르고 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적어도 특정 목적을 위해 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는 악마를 물리치거나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따라야 할 주문이나 주문이 있는 이와 유사한 다른 텍스트도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이것이 중요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는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맨 처음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웅알이를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신을 부를 수 있는지 생각하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예수께서 신들이 행동하도록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법의 텍스트에서 신성한 이름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법의 텍스트에서처럼 단순히 어떤 패턴으로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냄으로써 아버지의 신이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또 다른 점은 아마도 1세기에 마술이 널리 퍼졌음을 고려하면, 예수께서 현장에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마법의 텍스트와 마법 현상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마술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를 마술사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 마술을 수행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마법 주문을 발동하여 신의 힘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내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분을 이해하거나 오해했을 수 있는 배경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예는 이런 종류가 더 일반적으로 종교나 종교적 관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1세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오라클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신탁이란 원래 동굴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특정 장소를 말하는데, 보통 이런 신탁에는 여사제, 여자 사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여사제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장군이고 자신이 시작하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지,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어딘가로 이사해야 할지, 이 작물을 심어야 할지, 저 작물을 심어야 할지. 그래서 당신은 이 신탁 중 한 곳으로 가면 근무 중인 여사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오라클 중 하나는 델포이의 오라클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그걸 구글에 치면 그 위치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유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델포이의 신탁은 잘 알려진 신탁이었는데, 매달 7일이면 이 신탁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성지와도 같았고, 여사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그녀는 신에게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당신에게 다시 대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반응이 매우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 좋아, 그럼 내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은 때때로 매우 모호할 수 있지만 요점은 올바른 공식을 통해 신들이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질문에 답하도록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꽤 유명했고 신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신탁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 선택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에 이교 종교를 매우 광범위하게 나열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로마 제국의 종교적 환경은 매우 다신교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수많은 신들을 용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는 단지 유대교의 한 형태로 여겨졌을 뿐이고 1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인들이 항상 위험 속에 살았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늘 숨어 지내야 했고, 로마 군대가 모든 도시를 휩쓸며 그들을 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많은 압력은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때때로 Nero 아래 특정 지역에서는 압력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끌려나오거나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흥미롭습니다. 유대교와 같은 또 하나의 종교로 볼 수 있는 한, 로마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그것이 별개의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실제로 카이사르의 주권에 도전하는 배타적인 종교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는 다양한 이교 신과 종교를 용인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1세기에 살았던 거의 모든 도시에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다산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업과 관련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즉, 일이나 농사에 있어서도 당신의 성공은 신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주신 신들에게 예배하고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로마 도시에는 다양한 이유로 가서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그것은 서기 1세기 조금 전과 그 기간 동안 소아시아 또는 현대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성전을 둘러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약성경 문서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곳에서 일어났던 종교를 둘러싼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몇 가지 다른 예입니다. 이것은 코린트(Corinth)시에 있는 아폴로 신전(Temple of Apollo)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랑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의 신전 중 하나의 유적입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 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도시인 에베소는 다산의 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 건축 방식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개인의 집에서 발견되었을 제단의 사진입니다. 따라서 성전, 즉 그리스-로마 도시 중심에 있는 다양한 성전에서 예배할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집에 작은 개인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에 누군가의 집에서 발굴되어 실제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요점은 1세기에는 예배에 있어서 다양한 종교적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 도시는 매우 다원적이었고 다양한 신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직장이나 농작물 등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책임지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며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 선택은, 내 생각엔 그게 마지막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제우스 신의 그림인 제우스입니다. 1세기의 또 다른 종교적 선택은 영지주의로 알려지거나 묘사된 것입니다. 영지주의(Gnosticism)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gnosis)에서 유래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지주의,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 운동으로서의 본격적인 영지주의는 신약성경 문서가 제작된 후 2세기가 되어서야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중에 본격적인 영지주의로 등장한 영지주의 사상이 이미 1세기에 존재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플라톤의 이원론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세계는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악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신은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영지주의적 사고에 반항하는 일종의 작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또 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이고 참된 세계이며 선하다고 말합니다. 물리적 세계는 악하다. 그러므로 구원은 육계의 투옥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얻은 곳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소수 엘리트의 비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영지주의(Gnosticism)입니다.

이제 이것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문서이거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파피루스 시트에 있는 조각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영지주의 복음서로 알려진 것의 일부입니다. 1세기에 잘 알려진 저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는 아니지만 2세기에 제작되어 영지주의를 증언하는 잘 알려진 저술입니다. 믿음과 영지주의적 사고.

구원은 소수 엘리트의 비밀 지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원은 물질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상이다. 그리고 이 도마의 영지주의 복음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님이 영지주의 사상과 영지주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격적인 영지주의는 2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고는 이미 1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 문서 중 일부가 영지주의적 사고 방식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종교적 신념은 내가 종교적 신념을 나누어 놓은 메모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금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종교적 신념으로 나누었지만 유대 세계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일종의 종교적 슬래시 정치 운동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세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흐려졌고 쉽게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종교와 정치는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리스-로마 제국의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스-로마 제국이 확산됨에 따라 로마 황제가 곧 죽은 후에야 신이나 신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후에 황제가 신격화되거나 신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후에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경에 살아있는 황제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신에 대한 환호와 실제로 숭배의 칭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황제 중 한 사람,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통치하던 황제였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황제가 요구하든 안 하든, 주님과 하나님, 심지어 구원자라는 칭호를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주 일어났던 일은 1세기에 아마도 이것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황제도 숭배받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이교도 신들의 사원 중 일부와 함께 실제로 일부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사원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도미티아누스 신전의 유적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1세기 말에 살면서 통치했던 황제이다.

그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통치하던 황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 유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교도 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찰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원은 실제로 황제가 직접 승인하고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원은 실제로 황제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즉, 황제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황제가 자금을 지원했거나 적어도 승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그들의 평화, 안전, 복지, 세상의 구세주,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사원을 지은 사람은 지역 사회의 부유한 개인이었습니다. 참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는 1세기에 풍토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그 대부분의 도시, 에베소와 같은 주요 도시와 다른 도시, 두아디라, 계시록에서 읽은 일부 도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지어 황제를 기리기 위해 두 개의 사원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1세기 도시 중 하나에 사는 기독교인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으며, 특히 때로는 당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황제를 기리는 식사나 연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황제 숭배와 충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정상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황제는 대부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지역 수준이었습니다.

천황을 기리기 위해 신사를 짓고 유지한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마을은 천황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도 충성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할 것이며, 심지어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황제 숭배에 참여하거나 황제를 존경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약성서의 여러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을 자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종종 구세주라고 불립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올바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고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신약성서 기자들은 자주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글썄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구원자, 주님, 좋은 소식이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1세기 황제가 사용했던 일반적인 단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제는 종종 세상의 구세주 또는 주님이자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나는 내 동전 책 중 하나에 도미티아누스의 그림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은 그를 주님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자, 주, 하나님은 황제에게 자주 사용되는 칭호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번역하는 좋은 소식(Good News)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황제의 탄생과 같은 황제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저자들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주로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로마제국을 전복시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만유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세상의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며, 황제의 탄생도 아니고, 황제의 삶을 둘러싼 사건들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참된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 언어가 참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 문서가 로마 통치와 로마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경향이 꽤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독교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자들은 그것을 로마가 주장한 것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나 대답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전부인 것 같아요.

응. 좋습니다. 그리스-로마에 관해 질문 있나요? 유대인의 측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의 종교적 슬래시, 철학적 슬래시, 정치적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것들과 관련된 질문이 있나요? 응.

누구와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대체로 2세기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많은 영지주의 문서는 예수와 사도들이 실제로 영지주의 신앙과 영지주의 가르침을 가르쳤음을 보여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선택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상당히 넓은 획과 넓은 붓 획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노트를 볼 때 여러분이 보게 될 여러 슬로건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토라를 공부해보자. 헤어지자. 등등을 수용하자.

그게 바로 그 슬로건이고,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사람들 중 누구도 실제로 해당 항목을 구독했거나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이 그룹들이 생각했던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부분의 그룹, 유대교 내의 이러한 운동의 대부분은 외국의 통치와 억압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정의되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외국의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왕좌에 앉은 다윗의 자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카이사르는 로마의 왕좌에 앉아 모든 이교 종교와 영향력 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대교 내의 이러한 다양한 그룹이나 운동은 부분적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과 다양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교 전체, 즉 1세기의 모든 유대인을 이러한 당파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속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통 유대교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로마 통치의 맥락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다양한 정당, 다양한 운동,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양한 반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억압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되는 것 같다는 사실. 그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첫 번째로 토라를 공부해 봅시다. 그것은 아마도 외국의 억압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1세기 유대교의 한 표현의 특징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관 복음서의 특정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 구약성서를 복사하고 해석하는 일을 맡은 전문적인 구약성서 학생이나 학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범주가 모두 상호 배타적이라고 제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 개는 있지만 그 중 일부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슬로건이 말했듯이 우리의 슬로건은 토라를 연구하자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서기 70년 이후에 성전이 다시 파괴되었을 때 랍비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슬로건은 '분리하자'입니다.

유대교 안에도 '분리하자'를 구호로 내세우는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 그룹은 개인적, 도덕적 순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꽤 훌륭하고 존경받았으며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순결을 추구하고, 율법을 예리하게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도덕적 순결을 통해 로마 통치하의 1세기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성경적 이름인 바리새인은 우리가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도덕적 순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를 접하게 되면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통치 속에서도 사회의 변화와 쇄신은 율법 준수와 개인의 순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반 로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그룹이 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일부는 그랬지만 약간의 중복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랬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다른 그룹까지 진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그룹도 수용하자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즉, 이 그룹은 좀 더 친로마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더 열심이였으며 특히 로마인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더 부유하고 엘리트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공통의 적을 찾을 때까지 바리새인들과

크게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협력할 의향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사두개인.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것은 부활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은 완전한 회복, 세상의 변혁 등을 생각하여 현 상태를 뒤흔들지 않으려는 그들의 염원과 함께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일종의 엘리트이자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인 사두개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만족했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과 유사한 또 다른 그룹인 Let's Separate와 다른 그룹은 Let's Withdraw라는 슬로건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 로마의 통치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던 예배의 부패함을 보고 생각한 것에 대해 실제로 반응한 집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 운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자체와 성전이 부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로 물러나서 자신들만의 종파, 공동체를 만들고 순결을 추구하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 참되고 순수한 성전을 재건하실 세상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분리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고, 엄격한 준수와 순결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날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그룹, 내가 어떤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Essenes 또는 Qumran 공동체.

이 둘이 정확히 같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Qumran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쿰란 공동체는 사해에 있는 공동체의 폐허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이 내용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다시 분리되어 공동체를 설립한 종파였습니다. 배경으로 사해(Dead Sea)가 보입니다.

그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구약의 율법인 안식일 준수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새롭고 물리적인 성전을 세우실 그날까지 자신들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순결을 유지하고 도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상과 사회의 부패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분리시킨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동굴의 사진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Ted는 어느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곳이 4번 동굴인 것 같아. 괜찮은. 그 위에는 여러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절벽에서는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라고 부르는 사해 두루마리가 여러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4번 동굴입니다.

사해 두루마리를 읽어 본 적이 있다면 두루마리의 이름이 4Q 또는 11Q, 1Q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와 11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동굴의 숫자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쿰란 공동체가 그 숫자를 매겼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제공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수많은 문서가 남아 있는 동굴 중 하나이다. 이것은 많은 문서를 공개한 특히 유익한 동굴이었는데, 그 중 많은 문서가 이 공동체의 설립을 증언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여기고, 스스로 구별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지위와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실제로 아마도의 사진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중 하나의 단편 중 일부입니다. 많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나이입니다. 그 중 상당수는 단편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굴 중 하나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중 하나의 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확히 어느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다들 달려가서 확인해 보지 마세요. 사해 두루마리의 영어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 종교, 정치, 철학 운동에 관한 주요 선택지 중 네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철학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모든 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양한 유대 종교 운동이 종종 그들의 정치적 견해, 로마를 어떻게 보았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최종 옵션은 또 다른 그룹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룹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뚜렷한 선을 그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 신과 율법에 대한 종교적 헌신과 믿음의 또 다른 표현, 그리고 그것이 로마에 대한 반응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싸우자'라는 슬로건을 가진 그룹에서 예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견해는 –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왕을 보좌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가계에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좌. 자, 그것은 외국 통치자에 의해 모순됩니다. 이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약속하셨다면 그들의 반응은 "싸웁시다"였습니다.

즉, 로마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1세기의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열광적인 사람들. 바울은 분명히 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자신의 동지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폭력적으로 박해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1세기 테러리스트의 좋은 예였습니다.

그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너무나 독실해서 자신의 조상 종교인 유대교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파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은 몇 가지 옵션입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세기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유대교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다른 그룹에 속한 몇몇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볼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유대교의 이러한 모든 표현이 유대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동시에 유대교라는 단어보다 유대교의 복수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표현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 운동의 맥락에서,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David Mathewson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종교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강의 3입니다.